

1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그는 지구분을 돌렸다. ]
- ② [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 ③ [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 ④ [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
- ⑤ [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해설>

1. C의 전 세계적 유행과 X의 효능을 고려했을 때 을의 반박이 결정적이더라도 (가)는 실용적 필요에 의해 가설을 수용, 즉 전체 지식에 추가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 을은 ‘기존 지식’과 ‘여러 조건’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가설 때 문에 예측이 실패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이 예측은 주변부 지식이 아닌 경험과 충돌한다.
3. 을은 X의 효능이라는 실용적 필요를 고려하여 (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X가 기존 바이러스 치료제와 차별화된다는 내용은 보기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지식의 수정 역시 ‘기존 지식’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가설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실용적 필요’가 지문에서 두 번 언급되는 만큼, 두 내용의 범주를 확실히 구분했어야 한다.
4.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한 경우는 지식이 경험과 충돌했을 때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바이러스와 C 사이 차이점에 대한 지식은 주변부 영역에 속한다.
5. 병은 갑과 을의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나, 갑의 지식은 임상 실험이 아닌 ‘일반 바이러스와 다른 C의 특성’ 때문에 충돌한다고 본다. 즉 병의 입장에서는 을의 예측인 (다)가 ‘기존의 지식’이 틀렸다는 점에서 거짓이라고 본다. 따라서, (가)가 틀렸다는 을의 예측 역시 거짓이다. 병의 입장에서 (가)가 틀린 이유는 일반 바이러스와 C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 바이러스에 대한 기존 지식을 참조했기 때문이다.

이 문항에 대한 저작권은 우유비트(na992615 / IMIN 884273)에게 있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